

<워킹워드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말씀의 주제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1-8

[계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다

[계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15: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15: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계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
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
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당신을 향한 계획을 살펴보세요.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서 적어 보세요.

인식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적어보세요.

적용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에 실천에 옮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 보세요.

기도

본문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시고 그 기도문을 <간구-선포-감사>기도로 드려 보세요.

나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눠봅시다...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반원들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봅시다.

1.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4절)

▶ (그룹제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일곱 재앙을 가지진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저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그 일곱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 이뤄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5-8 절)

▶ (그룹제안)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재앙은 누구에 의해 이뤄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영적으로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을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재앙으로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에 해당되며 '세번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나열되는데 그것은 일곱 대접 형태로 이 세상에 부어졌습니다.

[계 15:2]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2절 상).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거룩한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계 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 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계 21: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

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
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
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계 21: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유리바다'
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유리바다에 주님
의 보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있는 성
도들은 모든 짐승의 핍박을 극복하고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
는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
다'라는 뜻은 성령의 불에 의해 보다 강력한 하나
님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연
상케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과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서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의 특권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계 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계 15: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5: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드디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곱 재앙을 받아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천사들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5절).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6절)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일곱 천사는 모두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마포는 맑고 빛난 세마포였으며 게다가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계 1: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는 주님의 세마포 형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의 세마포가 주님의 세마포 형상과 비슷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존귀한 천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옆에 있었던 존귀한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7절). 주님 보좌 옆에서 주님을 경호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네 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을 건네주는 모습을 통해 주님 옆에 있는 네 생물들의 지위가 일곱 천사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언급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였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의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계 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스

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사도 요한처럼 스랍을 보았는데 스랍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군사'와 같은 천사라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가대원'과 같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 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재앙이 담긴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8절 상).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이 일곱 천사에게 전달될 때에 어찌하여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가득찬 '연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찬 내용을 몇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하나님

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을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곳에 '연기'가 가득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 6:1]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6: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사 6: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러한 '연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

타난 증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기'를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였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찬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차기 때문입니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헌납하는 낙헌식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의식을 수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감히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또한 에스겔은 환상으로 성전에 가득히 차있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겔 10:4] 여호와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나 '연기'가 가득할 때에는 그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 일곱 재앙이 마치고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8절 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마귀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욱더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천사/그룹/스랍

1. 천사들(angels)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도와 천국의 것을 이 땅에 전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천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 18:10]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천사는 본질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헬리어 <앙겔로스>로 남성명사로 쓰여진 것과 같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주로 남성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창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창 18: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성경에서는 천사의 수가 무수히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룹이나 스랍과 같은 천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 그룹(cherub, 체루빔-cherubim)

그룹에 대한 첫번째 언급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더 이상 에덴동산에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화염검과 그

룹을 두셨습니다.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루브>인데 이곳에 남성 복수형 어머인 <임>이 붙어 <케루밤>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케루밤>이라고 하면 ‘그룹들’이란 복수형태가 됩니다.

그룹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성소의 그룹들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Ark of Covenant)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mercy seat) 혹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붙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속죄소와 함께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였습니다. 그룹은 하나

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호위군사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의 언약궤(삼상 4:4)" 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삼하 6:2),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왕하 19:15),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사 37:16)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삼하 22:11),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시 18:11)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확연하게 운행하는 그룹들을 보았는데 그룹들은 모두 네 날개와 네 얼굴을 지닌 생물(living creatures)이었습니다.

"[겔 1: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겔 1:6]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겔 1:7]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이 빛나며 [겔 1:8]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겔 1:9]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겔 1:10]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

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이 본 그룹은 에스겔 10장에서도 다시한 번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네 생물의 모습은 띄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각 생물에 네 개의 형상을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도요한이 바라본 네 생물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바라본 네 생물 역시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의 모양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생물마다 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그룹은 네 개의 날개가 있는 반면에 사도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스랍(Seraphs)

스랍(Seraphs)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라프>로서 '불뱀(fiery serpent)' 또는 '스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로서 언제나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합니다. 만일 스랍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뱀'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벽별'이라 불리울 정도로 천사들 중에 매우 뛰어난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그는 '불뱀'이 된 것입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처럼 스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스랍은 '불뱀'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불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어 죽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랍은 그룹과 상당히 비슷한 천사계급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룹이 하나님의 호위 군사라고 한다면 스랍은 성가대원과 같

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지만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룹'의 임무와 '스랍'의 임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언급되고 있는 스랍은 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였습니다.

"[사 6:2]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사 6: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요한은 열린 하늘 문으로 이끌리어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며 보좌에 함께 하고 있는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을 보았다고 해서 그 네 생물이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과 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그룹이었지만 사도요한이 본 네 생물은 스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요한이 본 네 생물이 그룹이 아닌 스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 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계 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사도요한이 바라 본 네 생물은 이사야가 바라 본 스랍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스랍은 그룹과 달리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공중에 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발을 가린 것은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랍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존경심과 두려움과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